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8월 ~9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비관세장벽, 외환통제, 알제리, 저유가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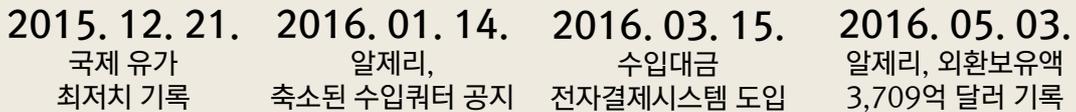
주요 키워드 :

비관세장벽, 외환통제, 알제리, 저유가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핵심이슈
도출

“알제리, 비관세장벽 및 외환통제 강화”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알제리, 비관세장벽 및 외환통제 강화

지난 9월 중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알제리 무역관에 따르면, 전체 수출의 98%를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알제리는 최근 저유가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재정수지 및 무역수지 악화와 외환보유고가 급감, 비관세장벽 및 외환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알제리가 실시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으로는 수입품에 대한 할부구입 불허,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송금) 거래 금지, 수입쿼터 등이 있다.

알제리는 국산품에 대해서는 할부구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입품에 대한 할부구입은 불허하고 있다. 이는 국제 무역거래에서 통용되는 내국민 대우 조건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알제리가 현재 WTO 회원국이 아니므로 WTO협정을 준수할 의무가 없기에 가능한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 알제리는 중소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T/T 거래 또한 금지하고있다. 이는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외환의 불법 반출을 금지하기 위한 방침으로, 최근 유가하락으로 인한 외환보유고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 확대에 따라 모든 외환의 대외 반출 시 알제리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알제리 정부의 수입규제와 외환통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알제리 디나르화의 지속적인 평가절하가 예상된다. 따라서 농식품을 비롯하여 알제리 제품과 해외산 제품의 경쟁에 있어, 알제리 국산품이 더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알제리는 모든 수입시 알제리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금년 3월부터 모든 L/C (Letter of Credit, 신용장) 개설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알제리 중앙은행의 사전 사후 검토를 통해 L/C 개설 승인과 수입 대금 송금이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등록증, 세금관련 서류, 수입허가증, 인보이스 및 계약서가 필요하다.

최근 국내 한 기업의 알제리와의 거래에서 수출대금 결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경우 수출대금의 송금 지연 사유를 파악하고 수입상에게 L/C 개설은행에 수입대금을 지급했는지, 영수증 제시를 요청해야한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